

제4기  
산업융합촉진 음부즈만  
분야별 제도개선  
건의 현황 ('21~'23)

- 에너지신산업 분야 -



# CONTENTS



## 제4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분야별 제도개선 건의 현황 ('21~'23)

※ 해당 자료는 '21~'23년 內 소관부처에 개선 건의 및 회신 받은 내용과, '23년도 3월 소관부처를 통해 이행현황을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

### 에너지신산업 분야 (3건)

- 태양광 발전소 안전관리자 상주 고용 기준 완화
- 신재생에너지 통합 관제시스템 기반의 전기안전관리 및 수소 연료전지 발전기술 운영 허용
-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 규정 內 파열시험 용기 사용 및 재시험에 대한 일관성 확보

# 태양광 발전소 안전관리자 상주 고용 기준 완화

에너지신산업 분야

## 애로내용

전기설비 용량 1MW 이상, 3MW 이하의 태양광발전소에 상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것은 전기설비의 위험 수준 대비 규제비용 부담 과중한 사항이며, 원격관리 및 제어 시스템을 통해 관리가 가능하며, 인력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낮은 용량에도 상주 안전관리자 선임을 요구하는 것은 사업 영위의 어려움으로 작용

## 건의결과



원격감시 및 제어시스템을 갖춘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대행범위를 확대하고(1MW->3MW), 원격감시 및 제어 시스템 설치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 마련

\*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('21.4).

\* 태양광 발전설비 원격감시·제어시스템 설치 및 운영기준 제정('21.6)

소관부처: 산업통상자원부

산업융합촉진 업무즈만

# 신재생에너지 통합 관제시스템 기반의 전기안전관리 및 수소 연료전지 발전기술 운영 허용

에너지신산업 분야

## 애로내용

분산형 연료전지발전 시설 운영 시, 원격 통합관제 시스템을 갖추고 전기안전관리 대행자를 배치할 경우, 상주 전기안전관리자만을 선임하는 것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현행 규정 상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가능 규모 기준이 낮아 불필요한 상주 전기안전관리자 고용이 요구되고 있음

## 건의결과



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을 갖춘 경우에 한해 안전관리 대행 허용 기준을 완화해야한다는 건의사항 수용, 추후 재논의 예정

\* 업계 의견 수렴후 개정 추진 예정 (중장기검토)

소관부처: 산업통상자원부

산업융합촉진 업무즈만

#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 규정 內 파열시험 용기 사용 및 재시험에 대한 일관성 확보

에너지신산업 분야

## 애로내용

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파열시험의 재시험 시 용기 선정 방식이 일관성이 없으며 불량 용기의 범위가 특정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배치 내 정상적인 용기까지 전부 폐기하게 하여 생산 단계 전 어려움을 겪고 있음

## 건의결과



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[별표4]\* 압축수소가스에 대한 3.2.3.7 파열시험의 개정을 통해 내압용기 제작사의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 방지

\* 국내·외 기술표준(ANSI HGV-2, KS B ISO 19881)과 동일한 사항으로 개정 예정 (~'24.12)

소관부처: 국토교통부



산업융합촉진  
음부즈만

※ (참고) 산업융합촉진 음부즈만에서는  
융합·신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·애로 해소를 지원하고,  
규제개선 확정 건에 대해서도 이행 현황 및 기업 애로해소 여부 등에 대한  
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## 위 내용 관련하여

애로해소가 미흡하거나 추가적인 문의 및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,  
"1670-9050" / "hyelim0507@kitech.re.kr"으로 문의  
또는 <https://www.oico.kr/>로 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

